가정예배

03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세요

성경 사무엘하 18:1-15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은혜의 찬양 282장)

1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2 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송가 585장)

2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하 18:1-15

1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삼분의 일은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3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4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6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14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

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본문 배경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교만과 야망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으며 자신이 더 나은 왕이라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뒤집으려는 반역을 일으켰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훼손하는 죄였습니다. 성경은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롬 13:1),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무사하길 바랐습니다.(삼하 18:5)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적인 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반역은 철저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길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악을 묵인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외적인 성공에 속지 않으시고, 교만과 거짓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공의롭게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 줍니다. 죄의 길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생명과 복의 길로 이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군 지휘관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나요?(5절)

답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설 신하들은 다윗이 직접 압살롬과의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신하들은 군사 만 명보다 다윗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성읍에 있다가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전장으로 나가는 신하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나요?(10-15절)

답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해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압살롬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갔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압은 작은 창 세 개를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그를 에워싼 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압살롬은 결국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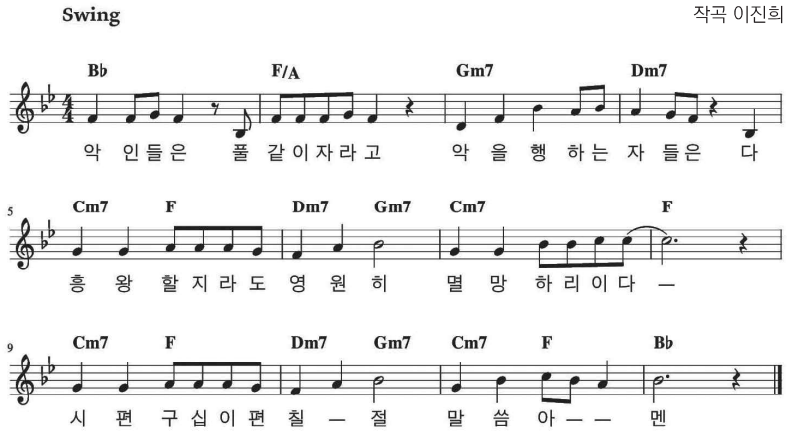
1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조차 살리고자 하는 다윗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2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압살롬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이러한 압살롬의 최후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 암송

8-3 악인들은 풀같이

시편 92편 7절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습 중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붙잡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